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강 수 경

가천대학교

최 혜 정

세살마을연구원

정 미 라[†]

가천대학교

본 연구는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종단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1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으로 분석하였다.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절차에 따랐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 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관계 질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6개월 영아발달은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관계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단기종단적 효과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영아발달,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6S1A3A2925502).

† 교신저자: 정미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E-mail: mrchung@gachon.ac.kr

영아기는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6개월이 되면 영아는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웅얼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 시기에 영아는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므로 양육자는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영아의 발달을 유도해야한다(Shaffer & Kipp, 2012). 특히 생후 6개월은 어머니를 통해 안정된 애착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임과 동시에 다양한 양육환경과 자극을 제공받는 의존적 단계이므로(이기숙 외, 2015), 6개월 시기 부모역할은 생후 1년간 자녀의 인지, 사회, 정서 등의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참여와 같은 양육특성, 부부관계 질이나 결혼만족도와 같은 관계적 특성, 부모의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있다. 부모의 관계적 특성인 부부관계 질은 영아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부모의 양육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첫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 질은 감소되는 시기로(Feldman, & Nash, 1984) 부부관계에서 겪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wan, Cowan, Heming, & Miller, 1991).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양육결정모형을 제시한 Belsky(1984)는 부부관계 질이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부부관계 질과 양육특성 간의 관계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부 간 갈등이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Stocker, Richmond, Low, Alexander, & Elias, 2003),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어머니의 정서가 안정되어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수용

적인 태도를 보여 영아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1). 즉 부모의 양육특성은 양육환경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부의 관계적 특성과 함께 고려되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후 1년 동안 부부의 관계적 특성인 부부관계 질과 부모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은 양육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강조한다(Coleman & Karraker, 2003; Jones & Prinz,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며(Reyno & McGrath, 2006),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환경의 영향을 보완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Jones, & Prinz, 2005). 또한 부부관계 질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Kersh, Hedvat, Hauser-Cram, & Warfield, 2006),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수준이 높았다(임명희, 박윤조, 2011; Coleman & Karraker, 2003).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부부관계 질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이경하, 서소정, 2009). 그리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애착과 같은 정서적인 특성 또한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긍정적 발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나타났다(김하나, 서소정, 2012).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특성

인 양육효능감은 영아 초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 질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영아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양육특성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 생애초기 1-2년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asterbrook, Raskin, & McBrian,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와 내용은 어머니와 다르게 이루어진다(이영환,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999년에서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어머니에 비해 여전히 절대적으로 짧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놀이활동 및 신체활동에 할애하는데(문혁준, 2004; Lamb, 2004) 이러한 아버지와의 신체적인 접촉,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버지와 영유아 자녀 간의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Lamb, 2004), 영아의 언어 및 정신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louri & Buchanan, 2004). 특히 자녀가 12개월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한유미, 조경자, 강기숙, 2012) 영아초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Doherty, Kouneski와 Erickson(1998)에 의하면 아버지 양육참여는 부부관계 질 및 유아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관계 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요구나 필요에 반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Reis, Clark, &

Holmes, 2004).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질이 높고,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2015; 이정순, 조희숙, 2005),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2014).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관계 질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아발달을 종단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6개월 영아의 발달이 이후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생애초기인 신생아 시기의 자기조절 행동은 4개월과 6개월의 정신운동 발달과 6살의 지능지수를 예측하며(Canals, Hernandez-Martinez, Esparo, & Fernandez -Ballart, 2011), 6개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특성이 이후 15개월의 사회정서적 행동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수정, 광금주, 2009). 그리고 6개월 영아의 지능 발달은 24개월 발달과 32개월 지능발달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Domsch, Lohaus & Thomas, 2009)를 통해 6개월 영아의 발달수준이 이후 12개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양육특성과 영아발달과 관련된 단기종단 연구 가운데 박수연(2012)의 연구에서는 4-5개월 시점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15개월의 영아 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나중혜와 이정원(2010)의 연구에서는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생후 1년 이내 영아의 애착안정성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erjee와 Tamis-LeMonda (2006)의 연구에서는 6개월에 영아-어머니 간 상호작용의 질이 14개월에 영아의 인지발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6개월 시점의 영아초기 양육특성이 이후 12개월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기종단 연구는 또래상호작용(하지영, 서소정, 2012), 영아 어휘(이지연, 장유경, 2005; 이지연, 장유경,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2005)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발달보다는 특정 발달 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다. 또한 연구대상도 대체로 18개월 이상의 영아이므로, 12개월 이전의 초기 영아기에 중요한 대소근육 발달과 인지 및 정서발달 등을 포함한 발달의 전반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양육참여와 같은 부모의 양육변인들 간의 관계만 종단적으로 살펴보거나(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영아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에 집중하여 발달에 대한 종단적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나종혜, 이정원, 2010). 즉 영아발달과 부모 양육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임현주 등, 2011; Belsky, 1984) 주로 횡단적 인과관계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임현주 등(2011)은 부부관계 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영아발달에 미치는 종단적인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고, Belsky(1984)는 부부관계가 양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양육결정모형을 제시하였지만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성 및 양육특성과 영아발달 간의 인과적 경로를 함께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를 통해 부부관계 질이 양육특성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영아초기에는 부모의 관계적 자원과 양육자원이 영아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인 변인일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양육특성 뿐 아니라 관계적 특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질과 같은 관계적 특성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특성, 그리고 직접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함께 포함하여 영아발달에 미치는 단기종단적인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6개월 시점의 부부관계 질과 같은 관계적 특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양육특성이 6개월과 12개월의 영아발달에 미치는 단기종단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관계적 특성과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와 그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 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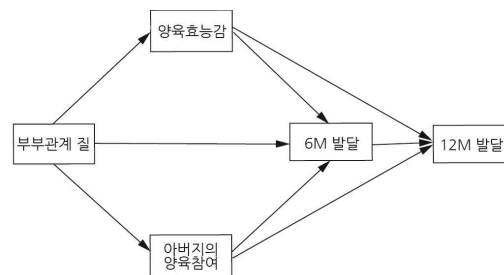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경기도의 대학부설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종단연구에 참여한 미취업 어머니들 중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서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어머니 총 310명이다. 영아가 6개월(Time 1)과 12개월(Time 2)이 되었을 때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반복하였고, 조사 시점은 기준 월령에서 ± 30 일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6개월은 5

개월 0일~7개월 30일 사이에 조사하였고, 이 기준은 12개월 월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 159명(51.3%), 여아 151명(48.7%)이었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첫 조사 시점인 Time 1에 183.7일($SD = 16.3$)이었고, Time 2에는 363.8일($SD = 16.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8세($SD = 2.9$)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 249명(80.3%),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240명(77.4%)으로 가장 많으며, 가계소득은 300만원 미만인 108명(34.8%), 300-400만원이 81명(2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구분		N(%)	
영아 성별	남	159	(51.3)
	여	151	(48.7)
영아 월령	Time 1	평균 183.7일	($SD=16.3$)
	Time 2	평균 363.8일	($SD=16.4$)
어머니 연령		평균 31.8세	($SD=2.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5	(4.8)
	대졸	249	(80.3)
	대학원 이상	46	(14.8)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12	(3.9)
	대졸	240	(77.4)
	대학원 이상	58	(18.7)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108	(34.8)
	300-400만원 미만	81	(26.1)
	400-500만원 미만	60	(19.4)
	500만원 이상	61	(19.7)

1) K-ASQ 지침서의 월령기준에 따라 기준 월령 ± 1 개월 이내의 월령 범위로 표집되었다.

측정도구

부부관계 질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의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중 정서적 과정의 존중(8문항)과 배려(8문항) 하위영역, 총 16 문항을 사용하였다. 존중은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내용(예: 남편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배려는 서로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에 대한 내용(예: 남편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에 응답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하위영역별로 존중은 .92이고 배려는 .85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 문화나 영유아 자녀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안지영(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7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8문항) 하위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역할 자신감은 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에 대한 내용(예: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부모역할 어려움은 부모 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예: 부모역할은 나를 지치고 진 빠지게 한다)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에 응답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며, 하위영역별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61이고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74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남편이 귀가 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질문하였다. 아이의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놀아주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책 읽어주기 등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즉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을 일주일 동안 기록한 후 하루의 평균을 계산하여 30분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 아버지 양육참여 시간은 최소 0 시간에서 최대 5시간으로 응답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영아발달

영아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허계형(2006)의 K-ASQ(Korea-Age and Stages Questionnaire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ASQ II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도구로 의사소통(6문항), 대근육운동(6문항), 소근육운동(6문항), 문제해결(6문항), 개인-사회성(6문항)의 5가지 영역, 총 30 문항으로 구성된다. K-ASQ는 4개월에서 6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발달정

도를 부모가 작성하도록 설계된 질문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Time 1에 6개월용, Time 2에 12개월용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원점수 산출방법은 영아의 발달정도를 묻는 질문에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영역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0-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전체 총점을 사용하였다. 6개월용 K-ASQ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며 하위 영역별로 의사소통은 .37, 대근육운동은 .51, 소근육운동은 .63, 문제해결은 .61, 개인-사회성은 .62로 나타났다. 12개월용 K-ASQ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며 하위 영역별로 의사소통은 .50, 대근육운동은 .65, 소근육운동은 .41, 문제해결은 .55, 개인-사회성은 .49로 나타났다.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Alvik & Grøholt, 2011)에서는 ASQ의 신뢰도가 .36~.78 범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 K-ASQ의 신뢰도 수준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영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 이상의 전문가 3인에게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고, 연구도구의 문항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영아를 둔 어머니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와 문항 이해도에 문제가 없었다.

본조사는 Time 1과 Time 2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Time 1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실시하였고, Time 2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영아가 6개월(Time 1)과 12개월(Time 2) 되는 시점에 훈련받은 양육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에게 연구의 취지와 연구윤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어머니가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영아발달 측정도구인 K-ASQ의 경우 영아의 성취여부 판단이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도움을 주었다. Time 1과 Time 2에 반복해서 참여한 전체 어머니는 358명이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명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결측값 처리는 평균대체법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부모 연령이 50대 이상인 6명과 첫째 자녀가 아닌 25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10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SPSS 21.0,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이 다변량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변인 간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부관계 질,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χ^2 (CMIN),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χ^2 값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그리고 모델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거쳤다. 넷째, 부부관계 질,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을 예측하는지를 엄격하게 조사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부부관계 질(Stanley, Amato, Johnson, & Markman, 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Hoff, Laursen, Tardif, & Bornstein, 2002)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Rienks, Wadsworth, Markman, Einhorn, & Etter, 201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사회경제적 수준 즉,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가계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의 계수 값은 표시하지 않았다.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부부관계 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발달의 기술통계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11-1.79)과 첨도의 절대값(.01-5.04)이 기준치(왜도 ≤ 3.0; 첨도 ≤ 8.0) 이하로 나타나 다변량정규분포의 가정(문수백, 2009)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Method) 절차에 따라 모델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상관관계는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6개월 영아발달, 12개월 영아발달 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달 간의 관계

결 과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인

표 2.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1. 부부관계 질	1				
2. 어머니 양육효능감	.327***	1			
3. 아버지 양육참여	.198***	.068	1		
4. 6개월 발달	.121*	.256***	.137*	1	
5. 12개월 발달	.078	.198***	.037	.351***	1
평균	3.28	2.76	2.06	8.07	8.38
표준편차	.43	.30	1.18	1.21	1.03
왜도	-.26	-.23	.33	-.75	-.85
첨도	-.01	.64	-.46	.28	.74

* $p < .05$, *** $p < .001$

표 3.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text{CMIN})$	<i>df</i>	<i>p</i>	TLI	CFI	RMSEA	LO	HI
연구모델	5.661	4	.226	.950	.987	.037	.000	.099
수용기준	$\chi^2/df < 3$		> .05	> .90	> .90		< .10	

과모형에 따라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직접, 간접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달 간의 직접, 간접적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모델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4)$ 는 1.415($p > .05$), TLI는 .950, CFI는 .987, RMSEA는 .037로 나타나 모두 적합도 지수의 수용기준(Kline, 2013)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모델은 변인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

의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달 간의 직·간접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첫째, 부부관계 질이 양육효능감($\beta = .311, p < .001$), 양육효능감이 6개월 영아발달($\beta = .241, p < .001$)과 12개월 영아발달($\beta = .117, p < .05$)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부관계 질은 6개월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n.s.$). 둘째, 부부관계 질이 아버지 양육참여($\beta = .200, p < .001$), 아버지 양육참여가 6개월 영아발달($\beta = .117, p < .05$)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 양육참여는 12개월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n.s.$). 셋째, 6개월 영아발달이 12개월 영아발달에

표 4. 연구모델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관계 질	→ 어머니 양육효능감	.311***	-	.311*
	→ 아버지 양육참여	.200***	-	.200*
	→ 6개월 영아발달	.019	.099**	.118
	→ 12개월 영아발달	-	.071*	.071*
어머니 양육효능감	→ 6개월 영아발달	.241***	-	.241**
	→ 12개월 영아발달	.117*	.078**	.195*
아버지 양육참여	→ 6개월 영아발달	.117*	-	.117
	→ 12개월 영아발달	-.015	.038*	.022
6개월 영아발달	→ 12개월 영아발달	.323***	-	.32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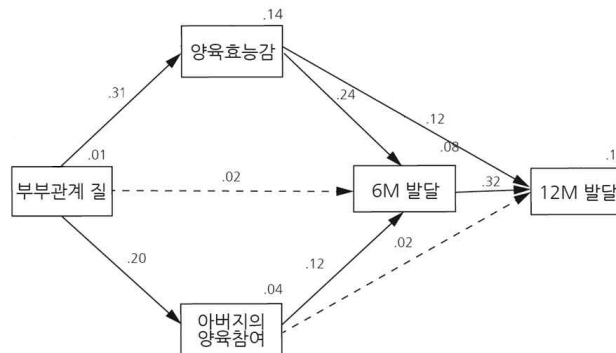


그림 2. 부부관계 질,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달 간의 직·간접적 경로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3, p < .001$).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부관계 질은 양육효능감과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9, p < .01$). 부부관계질은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 6개월 영아발달을 통해 12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1, p < .05$).

종합하면 첫째, 부부관계 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효능감을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은 6개월 영아발달과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관계 질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6개월 영아발달은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부관계 질은 양육효능감을 통해서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 질이 양육특성을 매개로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Belsky(1984)의 양육결정모형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관계 질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ersh et al., 2006)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Coleman & Karraker,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로서의 유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Pearl, French, Dumas, Moreland, & Prinz, 2014),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Robinson & Neece, 2015)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조화로운 부

부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는 물론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사소통도 원활하며, 어머니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므로(임희수, 2012) 결과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White & Booth, 1991), 배우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거나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써주는 등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부관계는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첫 자녀 출산 이후 감소된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자녀양육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등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12개월~31개월 영아의 정서발달을 높인다는 임명희와 박윤조(2011)의 연구와 6개월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14개월에 영아의 인지발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Banerjee와 Tamis-LeMonda(2006)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영아발달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특히 영아기는 양육자에게 의존적이므로 다른 시기보다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박수연, 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이기 쉽고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반면(Coleman et al., 2002),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을 경우 적극적이고 온정적인 양육을 하게 된다(안지영, 2000).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단기종단적으로 생후 1년 이

내 영아발달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부관계 질은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결혼생활이 아버지 양육참여와 아동의 발달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Doherty 등(1998)의 이론을 지지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정주, 김용미, 2007; 이정순, 조희숙, 2005; Lee & Doherty, 2007; Planalp & Braungart-Rieker, 2016). 김정주와 김용미(2007)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낸 시간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고, 이정순과 조희숙(2005)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부부관계가 더 원만하다고 밝혔다. Lee와 Doherty (2007)는 임신기부터 6개월과 12개월 시점까지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버지 양육개입 정도가 긍정적으로 관련됨을 밝혔고, Planalp와 Braungart-Rieker(2016)는 결혼생활의 갈등이 심할수록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부부관계 질은 더 좋은 가족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버지가 더 많이 양육에 개입하도록 격려한다(Leidy, Parke, Cladis, Coltrane, & Duffy, 2009). 그리고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은 아버지 역할을 통해 아내에게 사랑과 애정을 부여주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여(Menéndez, Hidalgo, Jiménez, & Moreno,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6개월 영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역할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Jeynes, 2015)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다양한 발달 및 학업 성취 사이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임신기부터 취학 전 연령까지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연구(Simonelli, Parolin, Sacchi, De Palo, & Vieno, 2016)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영아의 사회성, 인지, 언어발달, 정신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 Flouri & Buchanan, 2004; Malmberg, Lewis, West, Murray, Sylva, & Stein, 2016), 아버지의 긍정적인 언어반응은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이 있고, 놀이활동에서 아버지의 정서표현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중요하게 예측해준다고 보고한다(Lamb, 2004).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영아발달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아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고, 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보살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통계청, 2014).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으로 측정하였지만, 양육참여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씻기기, 먹이기 부터 놀아주기, 보살피기 까지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모두 포함하였다. 출산 후 첫 6개월 동안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조차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Feldman, 2000). 따라서 영아기부터 자

녀양육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잘 하여 아버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부부관계 향상은 물론 영아기 자녀의 발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6개월 영아발달은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발달의 지속성을 확인하였다. 즉 초기에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발달이 높은 영아가 월령이 증가한 이후에도 발달수준이 높았다. 이는 4-5개월의 발달수준이 이후 15개월의 발달수준을 예측한다는 연구(박수연, 2012)를 지지한다. 그리고 생후 첫 1년 동안 언어와 사물유목화 사이의 정확한 연결고리를 구축한 영아가 6개월 후에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연구(Ferguson, Havy, & Waxman, 2015)와 4~6개월에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이는 영아가 이후 12개월에 안정애착을 형성한다는 연구(Cohn, Campbell, & Ross, 1992)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초기 발달수준이 높은 영아가 시간이 경과해도 발달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초기 발달이 지연된다면 이후 발달에도 결핍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후 6개월 시기에 부모는 돌봄이나 양육상황 등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에게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부관계 질,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개월 시점의 영아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영아의 발달수준이 12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는 유아기 이후 성인기까지 발달의 기

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특히 생후 6개월은 혼자 앉기가 가능해지면서 탐색활동은 물론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부모의 감정을 잘 알아채고 이에 영향을 받는 전환기적 시기이고, 6개월까지 영아의 사회적 정서 반응이 증가하는 시기이다(Zero-to-three, 2010). 생후 6개월에 발달의 지연이나 결핍이 이후 12개월 발달에 누적될 수 있으므로, 생후 6개월 영아 초기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개월 시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부부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생애초기 시기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월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참여하게 하여 양육의 책임이 단지 어머니가 아닌 부부공동임을 인식하고, 영아의 발달시기에 따른 질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아기 발달의 국내 단기종단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아발달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미치는 단기종단적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즉 부부관계 질과 같은 부부특성과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와 같은 양육특성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기 발달이 이후 발달에 지속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 부모들이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하는데 지침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양적 시간으로 조사하였는데, 6개월, 12개월

시점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형이 영아 초기에 비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에 참여하는 물리적 시간 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형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부특성과 양육특성이 6개월과 12개월의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추후에는 영아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함께 포함하여 검증함으로써 단기종단적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발달을 비롯한 모든 측정도구를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을 방문한 양육전문가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연구방법적 측면이 보완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정 (2014). 아버지 심리특성 및 부부특성, 양육특성과 유아 사회성 발달간의 구조적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광금주 (2009). 어머니의 무표정한 상황에서 6개월 영아 반응과 15개월경, 사회 정서적 행동 간 관련성. *인간발달연구*, 16(2), 1-21.
- 김정주, 김용미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50(9), 269-287.
- 김한나, 서소정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 발달간의 관계 연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미래*

- 유아교육학회지, 19(1), 307-329.
- 나중혜, 이정원 (2010).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육아정책연구소(편),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pp. 84-107). 서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박수연 (2012). 영아와 부모의 특성 및 육아유형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월령단계별 및 종단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통계로 본 한국가족의 일·돌봄·가족생활리츠: 아동돌봄·보육통계 국가비교 및 한국의 추이 분석. 가족정책 통계브리프, 6, 1-4.
- 이기숙, 장영희, 이윤경, 정미라, 심성경, 손순복, 김영아 (2015). 영아발달. 경기도: 양서원.
- 이경하, 서소정 (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영환 (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 이정순, 조희숙 (2005).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2), 43-58.
- 이지연, 장유경,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2005). 영아 초기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61-77.
- 이지연, 장유경 (2005). 영아초기 어휘발달의 특성: 8~18개월 영아의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05-123.
- 임명희, 박윤조 (2011).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및 정서발달과 영아특성변인, 어머니특성변인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1(4), 57-82.
- 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1).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91-109.
- 임희수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정서표현성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 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678-2688.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2015). 부부 간 의사소통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2, 19-40.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기혼 가구주(배

- 우자)의 미취학자녀 유무별 행위자비율.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 하지영, 서소정 (2012).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41-166.
- 한유미, 조정자, 강기숙 (2012). 영아 및 부모 특성과 12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성 관계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441-457.
- 허계형 (2006).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발달 선별도구 K-ASQ의 적용. *총신대논총*, 26, 478-50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보건*, 19(1), 161-177.
- Alvik, A., & Grøholt, B. (2011). Examination of the cut-off scores determined by the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 in a population-based sample of 6 month-old Norwegian infants. *BMC Pediatrics*, 11(1), 117.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anerjee, P. N., & Tamis-LeMonda, C. S. (2006). Infants' persistence and mothers' teaching as predictors of toddlers' cognitive develop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0(3), 479-491.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anals, J., Hernandez-Martinez, C., Esparó, G., & Fernandez-Ballart, J. (2011).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 as a predictor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IQ in full-term infants: a 6-year longitudinal study. *Acta Paediatrica*, 100(10), 1331-1337.
- Cohn, J. F., Campbell, S. B., & Ross, S. (1992). Infant response in the still-face paradigm at 6 months predicts avoidant and secure attachment at 12 month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367-376.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26-148.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 123-140.
- Cowan, C. P., Cowan, P. A., Heming, G., & Miller, N. B. (1991). Becoming a family: Marriage,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Family transitions* (pp. 79-109). Santa Fe, NM: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oherty, W. J., Kouneski, E. F., & Erickson, M. F. (1998). Responsible fathering: An over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2), 277-292.
- Domsch, H., Lohaus, A., & Thomas, H. (2009). Prediction of childhood cognitive abilities from a set of early indicators of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2(1), 91-102.
- Easterbrooks, M. A., Raskin, M., & McBrien, S. F.

- (2014).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 regulation: evidence from a high social risk sample. *Fathering, 12*(1), 71-93.
- Feldman, S. S., & Nash, S. C. (1984). The transition from expectancy to parenthood: Impact of the firstborn child on men and women. *Sex Roles, 11*, 84-96.
- Feldman, R. (2000). Parents' convergence on sharing and marital satisfaction,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1*(3), 176-191.
- Ferguson, B., Havy, M., & Waxman, S. R. (2015). The precision of 12-month-old infants' link between language and categorization predicts vocabulary size at 12 and 18 months. *Frontiers in Psychology, 6*, 1-6.
- Floyd, F. J.,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ren Development, 69*(5), 1461-1479.
- Flouri, E., & Buchanan, A. (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141-153.
- Hoff, E., Laursen, B., Tardif, T., & Bornstein, M.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pp. 231-25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Jeynes, W. H. (2015). A meta-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Urban Education, 50*(4), 387-423.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63.
- Kersh, J., Hedvat, T. T., Hauser Cram, P., & Warfield, M. E. (2006). The contribution of marital quality to the well being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12), 883-893.
- Kline, R. B. (2013).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이현숙, 김수진, 전수형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05 출판)
- Lamb, M. E. (2004).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Lee, C. S., & Doherty, W. J. (2007). Marital satisfaction and father involve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thering Harviman, 5*(2), 75-84.
- Leidy, M. S., Parke, R. D., Cladis, M., Coltrane, S., & Duffy, S. (2009). Positive marital quality, acculturative stress, and child outcomes among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4), 833-847.
- Malmberg, L. E., Lewis, S., West, A., Murray, E., Sylva, K., & Stein, A. (2016).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sensitivity in the first year of life on children's cognitive outcomes at 18 and 36 month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2*(1), 1-7.
- Menéndez, S., Hidalgo, M. V., Jiménez, L., & Moreno, M. C. (2011). Father involvement

- and marital relationship during transition to parenthood: Differences betwee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4(2), 639-647.
- Pearl, A. M., French, B. F., Dumas, J. E., Moreland, A. D., & Prinz, R. (2014). Bidirectional effects of parenting quality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predominantly single parent, under-resourced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2), 177-188.
- Planalp, E. M., & Braungart-Rieker, J. M. (2016).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with young children: Evidence from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birth cohor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1), 135.
- Reis, H. T., Clark, M. S., & Holmes, J. G. (2004).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as an organizing construct in the study of intimacy and closeness. In D. Mashek & A. Aron (Eds.), *Handbook of closeness and intimacy* (pp. 201-22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Reyno, S. M., & McGrath, P. J. (2006). Predictors of parent training efficacy for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 99-111.
- Rienks, S. L., Wadsworth, M. E., Markman, H. J., Einhorn, L., & Moran Etter, E. (2011). Father involvement in urban low income fathers: Baseline associations and changes resulting from preventive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60(2), 191-204.
- Robinson, M., & Neece, C. L. (2015).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stres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Mental Health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8(1), 23-46.
- Shaffer, D. R., & Kipp, K. (2012).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9th Ed.). CA: Wadsworth.
- Simonelli, A., Parolin, M., Sacchi, C., De Palo, F., & Vieno, A. (2016).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interactive abilities: A multilevel approach. *Frontiers in Psychology*, 7, 1-11.
- Stanley, S. M., Amato, P. R., Johnson, C. A., & Markman, H. J. (2006). Premarital education,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findings from a large, random household surve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1), 117.
- Stocker, C. M., Richmond, M. K., Low, S. M., Alexander, E. K., & Elias, N. M. (2003).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Parental hostility and children's interpretations as mediators. *Social Development*, 12(2), 149-161.
- White, L. K., & Booth, A. (1991). Divorce over the life course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5-21.
- Zero-to-three(2010). Parenting infants and toddlers today: key findings from a zero to three 2009 national parent survey. Retrieved from <http://www.zerotothree.org>

1차원고접수 : 2018.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2. 19.

최종게재결정 : 2018. 03. 05.

**Effect of the marital quality,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ternal involvement on infant development: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u-Kyoung Kang

Hye-Jeong Choi

Mi-Ra Chung

Gachon University

Sesalmaul Research Center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marital quality,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ternal involvement on infant development.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10 mothers who were raising infants in the Seoul and Gyeonggi-do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s programs SPSS 21.0 and AMOS 21.0.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was utilized for parameter estima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xamined using the bootstrapping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quality was found to affect 6-month infant development through maternal parenting efficacy. Second, the marital quality has a direct effect on 6-month and 12-month infant development. Third, the marital quality was found to affect 6-month infant development through paternal involvement. Fourth, 6-month infant development directly affected the 12-month infant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exert influence on infant development in the short term and over the persistence of early infant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enhancing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Key words : *Infant development, Marital quality, Maternal parenting efficacy, Paternal involvement*